

알콜중독자의 우울이 자살사고(思考)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은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Alcoholics'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un-Hee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자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DSM-IV의 기준에 의하여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은 성인들로, 현재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울산, 부산, 포항, 경주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들이다. 설문조사는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기입방법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17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11월 0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3단계 매개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개입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알코올, 중독, 매개효과, 사회적지지, 자살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s between alcoholic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subjects were diagnosed with alcohol dependence by the DSM-IV, and are currently hospitalized at the hospitals in Busan, Ulsan, etc. for alcohol treatment.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the participant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ose who agreed to the research and survey was self-written. Through this process, 217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Survey was done from October 1 to November 1, 2017.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3steps'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done. The result of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show halfly medi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lcoholics'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hes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increasing the social support on alcoholics are suggested.

Key Words : Alcohol, Addiction, Mediating Effect,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OECD 국

가 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사망률) 비교 분석에서 OECD 평균 자살 12.0명(2013년 기준)에 비하여 한국은 28.7명으로 평균보다도 두 배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된다. 자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Lee(leh@dongguk.ac.kr)

Received November 7,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January 28,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살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가장 치명적인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서, 그 특성상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변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의 마련보다는 자살 고위험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고위험집단들 중 특히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위험성은 일반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1,2].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비중독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살할 확률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3] 특히 중증 알코올중독자 중 30~40%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4]. 최근 서울 및 경기지역 정신병원 6곳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 및 알코올 남용환자 1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5]에 따르면 이들의 자살시도율은 39.7%로 일반 성인 자살시도율(3%)에 비해 약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살시도와 자살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는 이중 장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장애 또는 이중진단이란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약물 남용 문제와 다른 심각한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1]. 여러 선행 연구결과들[6-8]에서도 알코올 중독과 우울, 기분 장애가 공존할 때 자살사고(思考)나 자살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알코올중독자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동반질환 중 하나로서 전체 알코올중독환자 중 많게는 약 90%에서 어떤 수준으로든지 우울증상이 나타나고, 30~40%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상이 나타난다[9].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역학조사[10]에서도 알코올중독 환자의 1/4~2/3정도가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런데 알코올중독자에게 공존 우울 증상이 있으면 자살에 대한 상승적이고 추가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 자살가능성이 60~120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우울 에피소드를 지닌 알코올중독자는 자살의 최고위험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울 성향을 지닌 모든 알코올중독자가 자살사고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우울의 부정적인 영향이 모든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울과 자살사고 사이에는 우울의 영향을 완화시켜 적응을 도와주는 변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다양한 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도움[13]으로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지각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각된 스트레스의 결과인 병리적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적인 차원에서도 적응을 위한 유용한 대처자원으로 평가[14]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15-18]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알코올중독과 우울, 자살사고 등에 관한 연구들은 알코올중독과 자살의 상관관계[1,2,6,19,20],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우울증 같은 이중장애의 높은 영향력[7-9,21]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자살의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우울성향을 지닌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살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우울이 그들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들에서 자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다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자살 고위험집단인 우울성향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SM-IV)기준에 의하여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의 성인들로, 현재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울산, 부산, 포항, 경주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들인데, 이들 가운데 기질적 손상이 있거나 한글해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병원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해당병원에서 치료중인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기입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23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16부를 제외한 총 217부가 분석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11월 0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2.2 조사도구

2.2.1 우울 척도

알코올 중독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eck이 고안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BDI는 '1-나는 슬프지 않다', '2-나는 슬프다', '3-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4-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총 21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BDI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9로 나타났다.

2.2.2 자살사고(思考)

자살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살행위에 성공한 자살자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또한 자살시도를 통해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기에는 윤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22]. 이러한 측면에서 극소수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살 연구는 자살관련변인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가 아닌 자살사고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자살사고는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선 것으로 자살을 예측하고 자살의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진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위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살사고를 자살관련 변인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자살사고는 Beck이 고안한 SSI(Scale for Suicide Ideation)를 신민섭 등[24]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전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당신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있습니까?'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3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SSI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78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지원[2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조사대상자들이 주변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금전과 물질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높이 평가해주는 '평가적 지지'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다. 이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모두 .87에서 .92사이로 나타났으며, 전체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2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test[27]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Sample

	Category	Frequency (%)
sex	male	202 (93.1%)
	female	15 (6.9%)
age	under 30s	19 (8.8%)
	40s	67 (30.9%)
	50s	101 (46.5%)
	over 60s	30 (13.8%)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77 (35.5%)
	high school	101 (46.5%)
	higher college	39 (18%)
marriage	married	122 (56.2%)
	divorced	42 (19.4%)
	separated	24 (11.1%)
	widowed	23 (10.6%)
	single	6 (2.8%)
amount of drinking	less than 1 bottle	12 (5.5%)
	1~2 bottles	63 (29%)
	2~5 bottles	108 (49.8%)
	more than 5 bottles	34 (15.7%)
economic status	low	61 (28.1%)
	middle	134 (61.8%)
	high	22 (10.1%)

먼저 성별은 남성이 202명(93.1%)으로 15명(6.9%)에 불과한 여성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이하가 19명(8.8%), 40대 67명(30.9%), 50대 101(46.5%), 60대 이상 30명(13.8%)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 101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 이하 77명(35.5%), 대졸 이상 39명(18%)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22명(56.2%)로 가장 많았고 이혼 42명(19.4%), 별거 24명(11.1%), 사별 23명(10.6%), 미혼 6명(2.8%)로 나타났다. 주량은 한번 술을 마시는 경우, 평균 2~5병 미만인 108명(4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병 미만 63명(29.0%), 5병 이상 34명(15.7%), 1병 미만 12명(5.5%)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4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람이 61명(28.1%), 경제적으로 양호하다는 사람이 22명(10.1%)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매개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우울수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살사고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과 주량 그리고 경제적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이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사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r = .262, p < .01$), 학력은 낮을수록($r = -.145, p < .05$), 결혼상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

지 않을수록($r = -.259, p < .01$), 우울수준이 높을수록($r = -.485, p < .01$),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r = -.403, p < .01$)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수록($r = .341, p < .01$),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r = .278, P < .01$) 사회적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여성일수록($r = .160, p < .05$), 연령이 높을수록($r = .176, p < .01$),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r = -.285, p < .01$),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r = -.351, p < .01$)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관계수인 .80 이상의 관계를 보인 변수는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알코올중독자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회귀분석을 하여 얻어지는 회귀계수들이 다음에 제시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충족될 수 있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우울)는 매개변수(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우울)는 종속변수(자살)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Table 2. Correlation of main factors

	1	2	3	4	5	6	7	8	9
1 sex ¹⁾									
2 age	.092								
3 education	-.009	.007							
4 marriage ²⁾	-.016	-.055	-.009						
5 amount of drinking	.085	.026	-.113	.009					
6 economic status	-.009	-.066	-.070	.187**	-.135*				
7 depression	.160*	.176**	-.014	-.131	-.116	-.285**			
8 suicidal ideation	.262**	.029	-.145*	-.259**	.019	-.121	.485**		
9 social support	-.067	-.034	.102	.341**	-.116	.278**	-.351**	-.403**	

¹⁾ male=0, female=1; * $p < .05$, ** $p < .01$, *** $p < .001$

²⁾ dummy 0=single, separated, widowed, divorced, 1=married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수(사회적 지지)는 종속 변수(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우울)의 효과가 3단계의 회귀분석보다 2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클 경우 매개변수의 역할이 검증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매개회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유의미적이지 못하면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유의미적이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1 1단계: 우울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이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주량, 경제 상황을 통제하고 우울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Effect of depression on the social support (step 1)

model	coefficient of non-standard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226	.849		1.445	.150
sex	-.034	.340	-.006	-.101	.920
age	.071	.105	.041	.679	.498
education	.164	.104	.095	1.569	.118
marriage	.805	.174	.281	4.624	.000
amount of drinking	-.228	.113	-.125	-2.026	.044
economic status	.316	.154	.132	2.047	.042
depression	-.316	.070	-.296	-4.535	.000
R^2	$Adj R^2$	ΔR^2	F	p	
.259	.235	.259	10.456	.000	

우울수준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한 1단계의 F값(10.456)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우울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는 전체모형의 설명력은 23.5%이며 우울($\beta = -.296, p < .001$)은 사회적 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2단계: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검증

Table 4.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step 2)

model	coefficient of non-standard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328	.473		2.808	.005
sex	.582	.190	.176	3.071	.002
age	.110	.058	.108	1.886	.061
education	-.135	.058	-.132	-2.323	.021
marriage	-.344	.097	-.204	-3.552	.000
amount of drinking	.046	.063	.043	.729	.467
economic status	.056	.086	.040	.656	.512
depression	.269	.039	.426	6.935	.000
R^2	$Adj R^2$	ΔR^2	F	p	
.343	.321	.343	15.590	.000	

3.3.3 3단계: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본 매개회귀분석에서 1단계(우울→사회적 지지)와 2단계(우울→자살사고)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분석에서의 1·2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인 자살사고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즉, 3단계에서는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인 1차 분석(Model I)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독립변수인 우울을 통제하고, 2차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Model II)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Model II의 회귀모형 F값(15.83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와 우울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자살 사고를 36%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우울의 회귀계수는 사회적 지지를 투입했을 때 $\beta = .426$ 에서 .361로 낮아졌다. 그리고 Model II에서도 독립변수인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Hierarchical analysis of social support on suicide ideation(step 3)

Model I					
model	coefficient of non-standard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328	.473		2.808	.005
sex	.582	.190	.176	3.071	.002
age	.110	.058	.108	1.886	.061
education	-.135	.058	-.132	-2.323	.021
marriage	-.344	.097	-.204	-3.552	.000
amount of drinking	.046	.063	.043	.729	.467
economic status	.056	.086	.040	.656	.512
depression	.269	.039	.426	6.935	.000
social support					
R^2	$Adj R^2$	ΔR^2	F	p	
.343	.321	.343	15.590	.000	
Model II					
model	coefficient of non-standard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468	.463		3.208	.002
sex	.578	.185	.175	3.126	.002
age	.119	.057	.117	2.094	.057
education	-.114	.057	-.111	-1.997	.047
marriage	-.240	.099	-.142	-2.421	.016
amount of drinking	.016	.062	.015	.263	.793
economic status	.097	.085	.069	1.149	.252
depression	.228	.040	.361	5.575	.000
social support	-.129	.038	-.219	-3.443	.001
R^2	$Adj R^2$	ΔR^2	F	p	
.378	.355	.035	15.831	.000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울성향을 지닌 알코올중독자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켜 자살사고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우울성향을 지닌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을 계획할 때는 우울감소를 위한 전략과 함께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에서 a, b 추정치를 통해 구한 Z값은 3.64과 2.73으로서 -1.96 이하, +1.96 이상의 범위(영가설 기각)에 속하므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중독자의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우울수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우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적게 받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사고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 음주량 그리고 경제적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은 낮을수록, 결혼상태는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보다, 그리고 우울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적게 받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사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우울성향을 지니면서, 학력이 낮고, 미혼이나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사회적 지지자원도 부족한 대상자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대해서는 자살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지지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알코올중독자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사고를 완화시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을 계획할 때, 우울증 치료와 함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선행연구들[28]에서도 알코올중독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에 잘 대처하여 보다 건강하게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알코올중독자들을 자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항상

시키기 위해서는 ①'자조집단'의 활용과 ②'가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먼저 '자조집단(A.A.)'은 그 구성원들이 모두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이다. 자조집단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동료들이 개인적 친밀감 속에서 상호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없는 동료애와 격려, 그리고 긍정적 견해를 제공한다. 동료의 인정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돕는 특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29]. 특히 알코올중독자들 가운데서도 자살 고위험집단에 속하는 우울수준이 높고, 학력은 낮으며, 미혼이거나 혹은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한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에게는 자조집단이 매우 필요하고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조집단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다른 사람과 연계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소속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살사고를 완화시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②알코올중독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 또한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30]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였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들의 중요한 지지자원인 그들의 가족은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중요한 지지체계이면서도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건강하고 중요한 지지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

알아닌(Al-Anon)은 알코올중독자들의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들을 돕기 위한 친목모임이다. 알아닌은 "알코올 중독은 가족 병이며, 중독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믿음 하에 가족들이 그들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험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다[29]. 따라서 알아닌과 같은 가족모임을 활용한 '가족교육'을 통하여 알코올에 대한 가족의

이해 증진과 함께 중요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역할의 증진을 도모하여 가족이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건강한 지지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며 회복 중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확률적 표집을 사용한 연구와 함께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에 대한 비교연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알코올 사용 장애는 전통적으로 남성 질환으로 생각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평생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29]. 그런데 여성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며 알코올 중독의 임상적 경과와 치료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따라서 알코올중독자들의 남녀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조사 대상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여 집단규모의 차이로 인해 비교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별로 나누어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M. S. Yoon. (2011). Suicidal Ideation among Alcoholics Moderating Effect of Alcohol Use,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8, 113-140.
- [2] K. R. Conner, R. J. Houston, M. T. Swogger, Y. Y. Conwell, H. H. Sungeun, S. A. Gamble & P. R. Duberstein. (2012). Stressful life events and suicidal behavior in adults with alcohol use disorders: Role of event severity, timing, and typ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20, 155-161.
- [3] H. C. Wilcox, K. R. Conner & E. D. Caine. (2004). Association of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nd completed suicide: An empirical review of cohort studi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6, 11-19.

- [4] M. Wojnar, M. A. Ilgen, E. Czyz, S. Strobbe, A. Jakubczyk, A. Klimkiewicz, J. Glass & K. J. Brower. (2009). Impulsive and nonimpulsive suicide attempts in patients treated for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5, 131-139.
- [5] A. Park & J. Jun. (2014). The Relationship of Alcoholics' Personal Relation and Suicidal Ideation: Depression's Moderating Effect, *Health Social Study*, 34(1), 379-407.
- [6] Gomberg. (1989). Suicide Risk among Women with Alcohol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9, 1363-1365.
- [7] Miller et al. (1992). Suicide Risk Associated with Drug and Alcohol Addiction, *Cleveland Clinic Journal of Medicine*, 59, 535-553.
- [8] Murphy et al. (1992). Multiple Risk Factors Predict Suicide in Alcoholis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459-463.
- [9] H. P. Hakko & K. V. Koponen. (2005). Alcohol Related Suicides in Victims with a History of Hospital-Treate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Addiction*, 14, 455-463.
- [10] Department of Health Welfare. (2006).
- [11] A. L. Son, T. K. Kim, E. J. Lu & K. J. Oh. (2009). Seoul Citizen's Alcohol Disorder and Stress, Mental Health and Suicide, *Journal of Korea Health Encouragement*, 26(4), 71-81.
- [12] H. P. Hakko & K. V. Koponen. (2005). Alcohol Related Suicides in Victims with a History of Hospital-Treate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Addiction*, 14, 455-463.
- [13] J. W. Park. (1985).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Yeunse University.
- [14] K. J. Lee. (1997). *Adolescence's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 Doctoral dissertation. Jeunnam University.
- [15] K. Park. (2005). The Mediation Effect of Problem Solving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Childhood Abuse Experience and Suicide Ideation, *Korean Psychology: School*, 2(2), 131-147.
- [16] T. W. Eom. (2007). The Cause of Old People's Suicide: The Influence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2), 355-379.
- [17] M. D. Rud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9, 16-30.
- [18] D. Morano, R. A. Cisler & J. Lemerond. (1993).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Loss, insufficient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Adolescence*, 28(112), 851-865.
- [19] H. C. Wilcox, K. R. Conner & E. D. Caine. (2004). Association of alcohol and drug use disorders and completed suicide: An empirical review of cohort studi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6, 11-19.
- [20] M. Wojnar, M. A. Ilgen, E. Czyz, S. Strobbe, A., Jakubczyk, A. Klimkiewicz, J. Glass & K. J. Brower. (2009). Impulsive and nonimpulsive suicide attempts in patients treated for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5, 131-139.
- [21] A. Park & J. Jun. (2014). The Relationship of Alcoholics' Personal Relation and Suicidal Ideation: Depression's Moderating Effect, *Health Social Study*, 34(1), 379-407.
- [22] S. Y. Lim. (1996). *The Impact Factor o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and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23] H. J. Lee & M. H. Kim. (2007). A Path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ness to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14(3), 243-264.
- [24] M. S. Sin & K. B. Park. (1990). A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nclination: The Analysis of Depression-Despair-Suicidal Ideation's Structural Relation, *Korean Psychology: Clinic*, 9, 1-19.
- [25] J. W. Park. (1985).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Yeunse University.
- [26] M. A. Baron & D.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27] M. E. A. Sobel. (1982). 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Eds.),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28] S. H. Park. (2004). *The Factor that Effect Alcoholic's Preparation of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University.
- [29] K. T. Kim, Y. S. An, S. S. Choi & E. H. Lee. (2005). *Understanding of Alcohol Addiction*, Yang Se Won.
- [30] H. Nam & J. Yang. (2007).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Alcoholics' Recover*,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Inchen University.
- [31] K. I. Lee & H. J. Kyun. (1987). The Treatment and Care on Woman's Alcoholic, *Korean Science*, 19(5), 526-534.

이 은 희(Lee, Eun Hee)

[정회원]



- 198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 E-Mail : leh@dongguk.ac.kr